

기적

예수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요한복음 5:1-15

2023년 8월 27일

안수식

메시지

최근 저는 글레이셔 국립공원(Glacier National Park)과 옐로스톤(Yellowstone)을 통해 오토바이 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군중에서 벗어나자 저는 고독과 고요함,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소음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점점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다른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

B4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듣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당신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환 및 목회자 선택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 - **Foursquare**의 프로세스 설명 ...

기적에 관한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지난 20세기에 일어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5:1 얼마 후에 예수께서 유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절기 중 안식일인 안식일에 예루살렘 어디로 가시나요? 교회에 가시나요? 회당. 사원.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오기 전에 원가에 정신이 팔려 계십니다.

요한복음 5:2-4 2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못이 있는데 아람어로 베데스다라 부르며 그 주위에는 덮힌 다섯 개의 주랑이 있더라. 3 여기에는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중풍 병자 등 장애인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Bethesda)는 친절이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그 이름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집이 아니어서가 아니라(덮힌 현관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수영장 주변에는 수백 명의 절름발이, 불구자, 유대 문화에서 "거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성소에 모여서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5-7 5 거기에는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6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랫동안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7 병자가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들어가는 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실망하거나 거절당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신앙 여정의 일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거나 임신을 하거나 가족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과 기꺼이 씨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8-9**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9** 그 사람은 즉시 나왔습니다. 그는 매트를 들고 걸어갔다. 이 일이 일어난 날은 안식일이였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에 관해 뭔가를 드러냅니다.

나에게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성전이 아닌 이 못으로 먼저 가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는 길이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있었습니다.

속죄(용서)를 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지만 치유를 위한 장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의 정결법은 특정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일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5:10-16** 유대 지도자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법에서는 당신이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1**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낮게 해 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러자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집어 걸어가라고 말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 있는 군중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다시 나왔느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5** 그 사람은 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낮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말했습니다. **16**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니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점점 커지는 긴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깨어진 상태에 함께 계십니다.

내 자신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켄은 체이스 이후 나와 함께 앉아 ... 나와 함께 울고 있습니다.)... 나의 치유는 수년에 걸쳐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부는 즉시 치유되지만 요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람을 위해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고...

둘째,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누구를 가장 대표하거나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인가 아니면 유대 지도자인가? 너무 빨리 응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지도자의 특징 예수님의 특징 범죄하는 자를 찾으심 상한 자를 찾으심 심판 하기 위해 긍휼을 베풀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죄인들과 어울림 하나님의 움직임을 놓침 하나님을 위한 기회를 창조함 이동

1부터 10까지의 연속체를 찾아보세요. 1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고 10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숫자를 줄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종교 지도자들과 더 비슷하게 봅니다.

절름발이와 종교 집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귀결됩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속삭이세요. 매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깨어진 상태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사람들의 질병이나 부상을 자신이나 가족의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어떤 지역의 어떤 죄에 대해 자연재해(하나님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점 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셨고 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병든 자들, 불구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고립감을 느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를 수영장에 들어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에 따른 절망과 외로움... 오랫동안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이 수영장에 오는 것을 지켜본 이 상처받은 남자를 상상해 봅니다. 치료받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잊었나요?

엄연한 사실은 예수께서 결국 병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셨지만,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아마도 관심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뭔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특정 집단의 사람들 탓으로 돌립니다.

짐 캐리(Jim Carrey)가 출연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Bruce Almighty)를 본 사람이 있나요?

Bruce에게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강도를 당한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어떤 남자들에게 구타당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그가 집에 돌아와 그의 여자 친구 **Grace**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화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괜찮습니다.

브루스: 맙소사!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응? 그분의 축복이 나에게 비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그건 비가 아니야!

그레이스: 브루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루스: 그건 나한테는 필요 없어. 그것은 진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 속에 있는 새 두 마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새가 없습니다. 나는
덤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새와 덤불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레이스 :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하는 겁니까?

브루스: 아뇨.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는 Evan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느라 너무
바쁩니다.

이 세대의 유머러스하면서도 현실적인 느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단순히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기독교 이후 세상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함께하는 방법이 있고 함께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네이크 리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INVITE BAND UP)** - 그들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치유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시간대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이겨내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구절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종종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깨어지고 궁핍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로 가라고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보다는 자비와 친절과 연민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에 함께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죄인들과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놓치기보다는, 그분은 우리 공동체와 가까워짐으로써
기회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희망을 잃은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나요? 자신이 함당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르게 생각하거나
다르게 투표하기 때문에 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은혜와 사랑, 능력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깨어진 세상에 회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처 받고,
소외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의 교회가 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화해와 온전함을 위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지난 몇 달간 나의 기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임하게 하소서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교회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주세요.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들어 가는 내 육신대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